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2

“기만에서 진실됨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마음열기

뻥 한 거짓 말^^

- 여자 : 나 오늘 완전 민낯이야
- 남자 : 이것까지만 피고 끊을 거예요
- 학생 : 숙제 정말로 다 했는데 집에 놓고 왔어요.
- 선생님 :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 부모님 :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해서 그래*
- 친구 : 이걸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 장사꾼 : 이거 정말 밀지고 파는 거예요
- 음주운전자 : 딱 한잔밖에 안 마셨는데
- 중국집 : *지금 막 출발했어요.*
- 옷가게 : *언니 이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이웃 딱 언니꺼네~*
- 이등병 : 아닙니다.
- 국방부 : 군 생활 만족도 95%
- 정치인 :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 미인대회 : 옆 사람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 수석 합격자 :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 시험다음날 모범생 : 나 이번 시험 완전 망쳤어.
- 약속에 늦었을 때 : *오늘 따라 차가 완전 막혀서요.*

📖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들으면 기분 좋은 뻥한 거짓말이 있다며? 당신이 잘 하는 뻥한 거짓말이 있다면?



###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창세기 2:17

17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창세기 3:4-13

4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8 그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9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13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위 성경 본문에서 알려주는 우리에게 들어온 거짓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실(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의 거짓(창 3:4-5)	너희는 죽지 않아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

	하신 거야.
거짓에 대한 인간의 반응(창 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어떤 것 이었습니까?(창 3:8)

그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숨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나요?(창 3:9-11)

9절 : “네가 어디에 있느냐?”

11절 :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신 것

☞ 인간의 솔직함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질문에 인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결과는 어떻게 인간들을 변화시켰나요? (창 3:12-13)

아담(창 3:12)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창 3:13)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거짓의 결과	거짓말로 인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게 되었다.

2. 당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거짓말 혹은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3. 아래 질문에 대해 서로 비교하여 나누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숫자로 갈수록 진실한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4. 누군가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당신에게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적용과 결단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사유 재산에는 엄청난 신경을 쓰는 반면,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데 뭐... 나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 진실에 색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이롭기 때문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윤색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건, 불순한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건, 상대방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건, 또는 무수한 다른 이유에서건 간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이죠.

- 우리의 삶에서 다들 묵인하는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ex) 이력서를 살짝 부풀리기.. 업무와 상관없는 식사비용을 살짝 부풀리기, 기업의 광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거짓증거...

- 또한, 당신의 삶에서 진실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며 어떤 부분인지, 당신이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